



제65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0월 2일)

14세기 동아시아 교역의 주역

이태희,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실 18:00~18:30

신안해저문화재 목간 가운데는 화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신안선에 선적된 화물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직명도 쓰기도 하고 사찰이나 신사의 명칭으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화주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강사綱司'로 총 110개의 목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강사綱司는 상단의 대표이자 무역선을 지휘하는 '강수綱首'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점하는 것은 도후쿠지東福寺로 총 41건의 예가 보입니다. 그밖에 조자쿠안釣寂庵(5건), 하코자키구궁崎宮(3건) 등이 있습니다. 도후쿠지는 교토에 있는 사찰로 13세기 송에 유학하고 돌아와 임제종臨濟宗을 이끌었던 승려 엔니門爾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조자쿠안은 후쿠오카의 쇼텐지承天寺 소속의 작은 암자입니다. 본사인 쇼텐지는 엔니가 당시 하카다博多에 거점을 두고 있던 남송의 상인 사국명謝國明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창건한 사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코자키구는 오진텐노應神天皇를 봉안한 진자로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안선은 '사사조영료당선寺社造営料唐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조영료당선은 가마쿠라 바쿠후 말기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쳐 사찰이나 신사의 건립 및 확충을 위하여 바쿠후의 허가 하에 파견된 무역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사조영료당선을 주도한 것은 사찰이나 바쿠후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조영료당선은 원-일본 무역을 주도했던 상인 집단이 원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안전을 보장 받고자 "사사조영寺社造営(사찰이나 신사의 조성)"이라는 간판을 걸고 일본 사회 상층부인 사사寺社나 무가武家와 제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 신안선의 화주명 목간도 강사 기명 목간의 수가 도후쿠지의 그것보다 3배 가량 많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역을 주도했던 것은 중국, 특히 강남지역의 해상이었습니다. 남송은 화북 지역의 상실 이후, 국가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적극 장려했고, 이에 따라 광주廣州, 천주泉州, 경원慶元 등 중국 동남 해안의 주요 항구는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려사에도 송의 상인들이 찾아왔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국에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왕에게 선물을 선사하거나 왕을 위하여 연회를 개최하는 등, 안정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권력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송을 점령한 원은 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확인하고 남송의 정책을 이어 갔습니다.

제65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0월 2일)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10) 전시 기획 이야기

오다연,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요청으로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가 3주간 연장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특별전을 준비하며 고민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설관의 서화실 관람객들 중에는 산과 물이 그려진 산수화를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 산수화는 보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화가가 실재하는 장소(명승명소)에 직접 가서 자연을 마주보고 스케치한 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고민하며 연습하고, 해석하여 완성한다는 실경산수화의 제작과정이었습니다. 즉 화가의 발걸음과 시선을 따라 가면 그림을 좀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프롤로그의 <단발령망금강산도>와 에필로그의 사진 <만폭동진주담>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물과 영상을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실경산수화를 정의하고 교육적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상상할 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전시실의 벽면에 쓰여진 글들, 화가의 여행 경로를 알려주는 지도, 화가의 소지품 등은 이들의 여정을 상상하게 합니다. 또한 제3부 “실경을 재단하다”에서는 뱃길을 따라 강변풍경을 담은 정수영의 실경산수화 제작과정을 재연한 다큐멘터리식 영상을, 전시실의 입구에는 금강산의 실제 풍경사진과 그림을 교차편집한 <21세기 금강산 여행>이라는 감상용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나아가 특별전과 이어지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상설관 2층 서화실에는 회화식 지도를 조명한 <그림과 지도 사이>, 기록적인 성격의 그림들을 선보인 <관아와 누정이 있는 그림>, <옥호정도-한양 속 별천지>를 마련했습니다. 각 공간에 펼쳐진 다양한 그림을 감상하며 실경산수화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의 프롤로그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 공주 마곡사 괘불

유경희,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1687년 5월, 마곡사 승려와 신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모여 높이 11m가 넘는 괘불이 완성되었습니다. 찬란한 햇빛과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을 사찰의 어느 특별한 날, 마당에 놓인 단단한 돌에 나무를 세우고 괘불도를 걸자 마곡사에는 부처님이 강림했습니다. 대형 화폭의 한 가운데 오색의 꽃과 구슬 장식으로 한껏 꾸며진 광배를 배경으로, 석가모니불은 한 송이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엄한 <마곡사 괘불>의 부처는 무슨 연유로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수요일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그 비밀의 해답을 함께 풀어 가실까요?



그림 1. 마곡사괘불, 1687년, 마본채색,
1065×709cm, 보물 제1260호



그림 2. 무량사괘불, 1627년, 마본채색,
1213×685.5, 보물 제1265호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13) 사후 세계의 연회

노회숙, 기획전시실 19:00~19:30

음악, 춤, 게임, 대화로 흥을 돋우는 연회 의식은 에트루리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와의 교류로 기원전 8세기경부터 연회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는 종교적인 의식의 수행, 스포츠 행사와 일상생활의 많은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에트루리아의 귀족들은 기대는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연회를 즐겼습니다. 와인과 향기로운 올리브 오일의 소비는 그리스와 동방에 동화된 경향이 있는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에트루리아의 풍성한 식물은 야생 돼지에게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돼지고기는 귀족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연회에서 손님들은

플루트와 리라 연주를 즐겼습니다. 손님들의 아내들 또한 참석하였는데, 그녀들은 남편 옆에 함께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연회 장면은 에트루리아 예술의 일반이 되었습니다.

타르퀴니아의 무덤 벽화, 무덤 부장품에 보이는 품격 있는 테이블, 키우시의 유골함은 에트루리아 귀족 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연회 의식을 보여줍니다. 장례 분야는 연회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 에트루리아인에게 장례 연회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는지 알려줍니다.

장례 연회는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장례식장에서 열린 실제 연회를 재현한 모습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승으로 떠나기 전,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열린 연회에 죽은 이의 영혼이 참석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회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띠었고, 그릇에 담긴 실제 음식과 와인을 죽은 이를 위해 무덤 안에 비치하였던 것입니다. 장례에서 행해지는 연회는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는 음식, 음악, 춤, 게임 등을 통한 사회적 환원과 지위의 재확인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연회 장면과 사자가 묘사된 유골함, 기원전 6세기 말, 높이 70.5cm,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